

북한 청동기시대 고고학 연구 경향의 변화와 쟁점

이기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융합고고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uare@nuch.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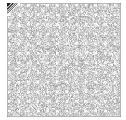
국문 초록

해방 이후 북한과 남한의 고고학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오게 된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정치성을 띠기 시작한 북한 고고학과 대규모 유적 발굴로 학문적 성장이 가속화된 남한 고고학은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며, 이러한 양상은 1990년대 대동강문화의 천명 이후 더 이상 공유되는 부분이 없을 정도의 괴리가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괴리는 '고조선'을 전후한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에 더욱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선사 고고학은 지속적으로 북한 고고학에 시선을 둘 수밖에 없다. 아직도 중요한 연구 주제 중인 '문화의 기원과 계통'을 찾는데 있어 북한의 자료가 주된 연구 대상이지만 그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는 '이중적인 시선'이 남한의 고고학이 북한 고고학을 바라보는 시선인 것이다.

북한 청동기시대 고고학과 남한 청동기시대 고고학에서 보이는 '괴리'의 많은 부분은 조사 사례의 증가, 학술적인 토론 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정치적 차이'에 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 선사 고고학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 고고학의 정치성을 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 현재 청동기시대를 바라보는 인식과 남한의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후 북한의 자료를 포함하여 '한반도의 선사문화',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선사문화를 설명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북한 청동기시대 고고학의 연구 흐름을 살펴보고 동시기 남한 청동기시대 고고학과 비교하여 어떠한 쟁점들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I. 들어가며

해방 이후 북한과 남한의 고고학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오게 된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정치성을 띠기 시작한 북한 고고학과 대규모 유적 발굴로 급격한 학문적 성장을 거둔 남한 고고학은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속화되어 1990년대 대동강문화의 천명 이후에는 북한과 남한의 고고학에서 더 이상 공유되는 부분이 없을 정도의 괴리가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괴리는 '고조선'을 전후한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에 더욱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선사 고고학은 지속적으로 북한 고고학에 시선을 둘 수밖에 없다. 아직도 중요한 연구 주제 중인 '문화의 기원과 계통'을 찾는데 있어 북한의 자료가 주된 연구 대상이지만 그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는 '이중적인 시선'이 남한의 고고학이 북한 고고학을 바라보는 시선인 것이다(이기성 2015: 6).

북한 청동기시대 고고학과 남한 청동기시대 고고학에서 보이는 '괴리'의 많은 부분은 조사 사례의 증가, 학술적인 토론 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정치적 차이'에 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청동기시대 고고학을 살펴보는 것은 그 정치성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 한반도의 선사문화를 구명하는데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예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북한 청동기시대 고고학의 연구 흐름을 살펴보고 동시기 남한 청동기시대 고고학과 비교하여 어떠한 쟁점들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II. 북한 고고학의 학사적 시기 구분

남한 고고학이 북한 고고학 자료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89년 5월, 북한 학술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면서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극소수의 연구자가 일본어로 번역된 북한 고고학 자료를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정도였을 뿐이나(김원룡 1973 등), 일반 공개 이후 고

고학과 역사학계는 적극적으로 1980년대 후반까지의 북한 고고학 자료에 대한 집성, 정리를 시도한다. 당시는 북한 고고학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거나(이광린 1990; 이선복 1992; 한창균 1992 등), 주로 선사시대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데 집중되어 있어 역사 고고학에 대한 정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신숙정 1990, 1994; 임세권 1994; 장호수 1992a, b; 한창균 1990a, b, c, 1994 등).

이후 간헐적으로 북한의 자료가 공개 또는 영인되어 소개되기는 하였지만, 새로운 자료가 많지 않았기에 다시금 북한 고고학에 대한 자료의 정리 및 평가가 시작된 것은 2000년을 전후해서이다(박양진 1998; 하문식 2002; 한창균 1999a, b, 2002 등). 다시금 얼마간의 정체기 후 2010년대에 북한 고고학에 대한 신자료가 다수 소개되면서 새롭게 북한 고고학에 대한 정리 등이 이루어지게 되고(강인욱 2009, 2011; 백종오 2008; 임상택 2008; 이기성 2011, 2015, 2018; 장기재 2012; 하문식 2007; 한창균 2013a, b, 2014) 최근에는 북한 고고학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학술 대회까지 개최되었다(중부고고학회 2015; 한국고고학회 2016, 2018; 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고고학회 2019 등).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 중에서 해방 이후 북한 고고학의 흐름을 학사적으로 검토한 것들로는 이선복(1988), 강인욱(2009), 한창균(2013), 이기성(2015, 2016) 등의 논의가 있다. 최초의 학사적 시기 구분은 이선복(1988)으로, ① 1기: 해방 후에서 도유호의 『조선원시고고학』이 발간되는 1960년까지, ② 2기: 1960년대에서 1972년까지, ③ 3기: 신헌법이 발표되면서 주체사상이 북한의 공식적인 통치 이데올로기로 확립되는 1972년부터로 구분하였다.

북한 고고학의 학사적 흐름을 살펴볼 때 큰 참고가 되는 것이 2009년 발간된 『조선고고학총서 1 총론』이다(리주현·한은숙 2009)(이하 총론). 이는 북한의 학계에서 자체적으로 과거의 학문적 흐름을 시기 구분한 것으로, ① 1기: 해방에서 1953년 7월 정전협정까지의 시기, ② 2기: 1953년 8월에서 1961년 8월까지, ③ 3기: 1961년 9월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부터 1970년 10월까지, ④ 4기: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1980년 9

월까지, ⑤ 5기 :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1989년 12월까지, ⑥ 6기 : 1990년 1월부터 1994년 12월까지의 90년대 전반기, ⑦ 7기 : 1995년부터 현재까지의 7기로 구분하고 있다. 특정 유적의 발굴이나 간행물 또는 조사 주체의 변화 등이 아닌 정치적 사건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북한 고고학의 정치성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의 북한 고고학 시기 구분은 이 『총론』을 바탕으로 한다. 우선 한창균(2013)은 네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단계는 1945~1953년까지로 맑스-레닌주의적 방법론 적용을 모색하는 초기의 북한 고고학, 둘째 단계는 1954~1970년까지, 맑스-레닌주의적 방법론에서 주체적 방법론으로의 전환기인 형성기의 북한 고고학, 셋째 단계는 1971~1992년까지 주체적 방법론에 의한 북한 고고학 체계의 확립기, 넷째 단계는 1993년에서 현재까지로, 단군릉 발굴과 개건으로 상징되는 변혁 단계이다. 이기성(2015)은 총 6기로 설정하였는데, ① 북한 고고학의 성격 정립-도유호와 한홍수(해방 이후 1952년까지), ② ‘과학’으로서의 고고학 - 과학원의 설립과 도유호의 고고학(1952년~1960년대 초반까지), ③ 고고학의 변화 - ‘학문’에서 ‘도구’로(1960년대 초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④ 고고학과 주체사관 - ‘계몽’의 고고학(197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⑤ 단군릉과 대동강문화 - ‘선전’의 고고학(1993년 단군릉 발굴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 ⑥ 총서의 발간(2009년부터 현재까지) 으로 흐름을 검토하였다.

북한 고고학의 전체적 흐름을 살펴본 위의 연구와는 달리 북한의 청동기시대 고고학의 연구 경향을 구분한 사례(강인옥 2009)도 있는데, ① 1947~1960년까지의 청동기시대 연구의 정립, ② 1961~1967년까지의 거점별 편년 체계의 수립, ③ 1967~1984년까지의 청동기시대와 고조선, ④ 1985~1993년까지의 비파형동검과 고조선, ⑤ 199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대동강문화의 대두 등의 5기로 나누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특정 연구 결과물의 발간, 정치적

사건, 연구 경향의 변화 등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그 내용 자체는 유사하다. 1960년 발간된 도유호의 『조선원시고고학』과 1970년대 주체사상의 확립을 기점으로 하는 구분은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의 논고에서는 1998년에 제시된 ‘대동강문화’를 또 다른 하나의 구분점으로 보고 있는 시각은 공통된다. 정책이 변화하고 그에 따른 결과물이 생산되는데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상의 시기 구분은 거의 동일한 의미일 것이다(이기성 2015: 11).

본고에서는 북한과 남한, 양 지역의 청동기시대 고고학의 연구 흐름을 비교하고자 한다. 남한의 경우 북한처럼 정치적 사건에 의해 고고학의 획기가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고고학과 획기 구분에서 조금의 차이만 보일 뿐이다. 남한의 청동기시대 고고학에서 중요한 학사적 분기점은 1961년의 서울대 고고인류학과 개설과 대학박물관협회의 발족, 서울대 고고인류학과 개설(1961년),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고고학개설(1973)』의 발간, 송국리유적의 발굴(1975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는 신고고학의 수용, 발굴 법인의 설립, 청동기시대 편년의 변화(조기 설정), 한국청동기학회 발족 등을 들 수 있을 것인데, 필자는 이전 남한의 청동기시대와 초기 철기시대의 고고학사를 정리하면서 10년 단위로 해방 이후(1950년대) - 연구의 여명기(1960년대) - 1970년대(정리의 시대) - 연구의 활성화(1980년대) - 청동기에서 토기로(1990년대) -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2000년대)로 구분하였다(이기성 2018).

본고에서는 북한과 남한 양 지역의 고고학 연구 경향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필자가 기준에 제시했던 남한과 북한 고고학의 시기 구분과는 달리 ① 해방 이후~1950년대, ② 1960년대, ③ 1970~80년대, ④ 1990년대 이후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필자의 이전 글(2015)에서는 북한 고고학의 전반적인 성격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원의 설립을 기준으로 1950년대를 두 시기로 구분하고, 2009



년 총서의 발간을 하나의 구분점으로 보았으나, 본고에서는 청동기시대 연구 내용 자체에만 중점을 두어 해방 이후 1950년대를 한 시기로, 그리고 1990년대~현재까지를 한 시기로 보았다. 남한의 청동기시대 고고학에 대해서도 이전 글(2018)과는 조금 달리 1970년대와 80년대를 하나의 시기로 보았다.

Ⅲ. 시기별 연구 경향의 변화

다음에서는 각 시기별로 북한 청동기시대 고고학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 동시기 남한 고고학 청동기시대의 연구 흐름과 비교해 보도록 한다. 세부적인 연구 성과보다는 전체적인 청동기시대의 편년, 시기 구분, 사회 성격 등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한다.¹

1. 해방 이후에서 1950년대

청동기시대 고고학뿐 아니라 고고학 전반에 걸쳐 북한과 남한이 가장 큰 학문적 수준의 격차를 보여주는 때는 아마도 해방 이후의 시기일 것이다.

해방 이후 북한은 곧 고고학 조사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한다. 1945년 12월 1일 '조선중앙력사박물관' 개관, 1946년 4월 29일 '보물 고적 명승 천연 기념물 보존에 관한 법령' 제정, 1947년 '북조선중앙고적보존위원회' 창설, 평양, 신의주, 청진, 함흥, 묘향산에 '력사박물관' 설치, 이후 1948년 11월 1일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 1949년 '조선력사연구소' 설치, 1952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이 만들어지며 정비된 제도의 바탕 아래 활발한 고고학 조사 활동이 실시된다(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1960a).

해방 이후 1950년대에는 오동유적(1954, 1955년), 금탄리유적(1955년), 공귀리유적(1955년), 심귀리유적(1958년), 신흥동유적(1958년), 미송리유적(1959년), 석교리유

적(1959년), 호곡유적(1959~1961년), 침촌리유적(1958, 1959년) 등 지금까지 중요 자료로 인용되고 있는 많은 수의 유적들이 발굴되었으며, 그 유적들은 북한 전역에 걸쳐 있다. 1990년대 이후 청동기시대 유적의 발굴 조사가 평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시기에 가장 특기할 것은 1957년 지탑리유적의 발굴 조사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구분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한국 전쟁 이전에 조사되고 1955년에 발굴 보고서가 간행된 초도유적이 신석기시대 말기로 보고되거나, 궁산유적의 빗살무늬토기를 북방 요소, 오동유적, 초도유적에서 확인되는 무문토기와 방형 주거지를 남방 요소로 파악하는 등 계통 차이로 이해하였던 것을 이제는 시대 차이로 파악하게 된 것이다. 또한 1950년대 후반에는 시대 구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금속문화'의 계통과 기원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한다(정백운 1957; 김용간 외 1958; 김재효 1958 등).

이와 같은 1950년대 북한의 활발한 고고학 성과는 『조선원시고고학』으로 집성된다(도유호 1960a). 도유호는 주변 지역과의 교차 편년을 통해 청동기시대를 기원전 1천년기 초엽에서 기원전 4세기 초까지로 추정하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사회 구조의 해석에 대해 매우 유보적으로 '조선의 청동기시대가 대체로 아직 원시시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정도만 이야기한다(도유호 1960a: 271).

초기 북한 선사 고고학의 가장 큰 과제는 일제강점기 고고학의 '극복'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반도에 청동기시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금석병용기'에 대한 반론이었으며, 지탑리유적의 발굴 조사로 금석병용기의 존재가 부정된 후 더 이상 금석병용기는 언급되지 않는다. 이렇듯 일제강점기 고고학의 극복을 주장하였지만 문화발전의 요인을 외래 요소에서 찾는 인식은 실상 일제강점기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신석기시대 말엽에 벌써 대륙

1 Ⅲ장은 필자의 기존 논고인 「북한선사고고학의 패러다임(2015)」과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 고고학사 시론(2018)」을 바탕으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쪽에서 내려 미는 청동기 문화의 영향이 적지 않게 미쳤던 것'이라고 하거나(도유호 1960a: 267),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의 이행을 '청동기시대 말엽에 쇠붙이를 사용하는 어떤 종족이 래주하였음을 암시하는 유물 출토 정형도 보이나 더 많은 경우는 재래의 주민이 그냥 철기시대로 넘어 갔음을 이야기한다(도유호 1960a: 278)'고 말하는 등 도유호는 문화전파론의 입장에서 외부 문화 요소의 유입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인 학문으로서의 고고학'을 추구한 그의 입장은 결국 그를 북한 고고학에서 축출되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이기성 2015).

이에 비해 남한의 고고학은 당시까지 일제강점기의 고고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인 1933년에 제정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국립박물관에 의해 실시된 많지 않은 수의 발굴 조사 역시 대부분 고분에 집중되었다.

1950년대 초반까지 일제강점기에 제시된 석기시대 및 금석병용기의 개념은 그대로 이어졌으며, 청동기시대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는 시도되지 못하였다. 새롭게 발견된 유물을 해석하기 위한 참고 자료는 모두 일본인 연구자의 논문뿐으로(김정학 1950; 김원룡 1952), 해방 후 한국의 선사시대를 개괄적으로 다룬 최초의 글인 『韓國史 古代篇』에 수록된 「第1編 史前時代(김재원 1959)」에서 구석기시대는 제외되고 선사시대와 석기시대가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되는 점, 금석병용기가 하나의 시기로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은 일제강점기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도유호를 중심으로 북한의 선사 고고학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었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러한 북한과 남한의 격차는 1960년대까지 이어진다.

2. 19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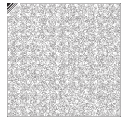
1964년 2월 사회과학원이 창설되고,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는 1968년 '고고학연구소'로 개편된다. 이 시기는 1970년대 정립되는 주체사관이 고고학에 이식되는 갈등의 과정이었다(이기성 2015).

1960년대 청동기시대 고고학의 특징은 신석기시대로부터의 '계승성' 확인과 고조선이 고고학의 한 분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1960년대 중반 발굴 조사된 신암리유적과 서포항유적에서는 빗살무늬토기와 무문토기가 한 유적에서 층을 달리해 확인되면서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이행 과정이 파악되고, 그 '계승성'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 시기 본격적으로 고조선이 고고학의 영역에 들어온다. 『조선원시고고학』에서는 철기의 사용을 노예 소유자적 국가의 출현으로 보고 있기도 하며 고조선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은 아니었으나(도유호 1956, 1960b, 1961), 도유호는 어디까지나 고고학적인 시대 구분에 천착할 뿐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 고조선과 관련된 다양한 토론회(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1960b, 1961a, b)와 중국 동북 지방의 유적들이 조중 공동 고고학 발굴대에 의해 조사(조중 공동 고고학 발굴대 1966)되고 이를 시작으로 비파형동검문화에 대한 연구의 본격화와 더불어 결국 고조선이 고고학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와 함께 도유호로 대표되는 기존의 청동기시대관에 대한 강한 비판이 시작된다(김유방 1963). 김용간(1964)은 요령 지방의 비파형동검 관계 유적을 '우리 선조의 한 집단'의 것으로 파악하고 서기전 2000년기 말까지로 청동기시대를 올려보는 등 도유호의 편년관을 부정하였다. 또한 황기덕(1964)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도 청동기시대에 형성된 노예 소유자국이었음을 추측케 한다'고 하면서 도유호의 견해를 반대하였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고학적 시대 구분으로만 일관했던 도유호는 비판을 받게 되고,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의 논의에 고조선이 포함되게 된다.

1970년대 주체사관의 확립을 앞두고 그 이전의 고고학 연구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되며 1960년대 중반 이후 학술적 활동은 중단된다. 이 시기에는 토성리유적(1960년), 룡당포유적(1960년), 외산동유적(1961년), 세죽리유적(1962, 1963년), 립석리유적(1962년), 강로리유적(1963년), 석탄리유적(1964, 1965년), 중리유적(1965년), 신암



리유적(1965, 1966년) 등과 함께 고인들이 조사되지만 『고고학자료집』, 『문화유산』, 『고고민속』 등에 짧게 소개될 뿐이며, 1967년 역사학의 대표적인 잡지인 『역사과학』과 고고학의 『고고민속』 모두 정간된다.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1968년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는 ‘고고학연구소’로 개편되고, 같은 해 ‘반동적인 <문화이동론>의 후과를 가시기 위한 전국사회과학도론회가 진행(리주현·한은숙 2009: 50)’되며 도유호로 대표되는 이전의 고고학은 강한 비판과 함께 부정된다. 그리고 주체사관에 기반을 둔 고고학의 연구 결과물은 197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1950년대 발굴 조사의 성과가 196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는 북한과 달리, 남한의 고고학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청동기시대와 초기 철기시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다. 초기 연구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시대 구분과 청동기문화의 기원 확인이었다. 석기나 토기 등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도 있으나 주된 연구 대상은 청동유물(윤무병 1966; 김양선 1964; 한병삼 1968 등)이었으며, 대학박물관에 의해 수석리유적(1961년), 명일리유적(1961년), 가락리유적(1963년), 역삼동유적(1966년) 등의 주거유적이 발굴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특기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청동기시대에 대한 편년이 제시된다. 김원룡(1961)은 한반도의 청동기문화를 연대는 기원전 6~5세기, 요녕 지방에 존재하던 석관묘를 동반하는 비중국계 청동기문화를 그 기원지로 이해하였으며, 이 주장은 이후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 된다. 단행본은 아니지만 최초의 한국 고고학에 대한 개설인 『한국문화의 고고학적 연구(김원룡 1964)』에서는 최초로 종합적인 시대 구분을 시도하고 있는데, ‘구석기시대 및 중석기문화 → 신석기시대 → 청동기문화 → 초기 철기문화 → 김해문화 → 삼국 고분문화’로 시대를 구분하였다. 각 단계의 연대에 대해서 청동기문화는 기원전 6~5세기에서 기원전 4~3세기까지로, 초기 철기문화는 기원전 4~3세기에서 서력 전후까지로 대략적으로 파악할 뿐 명확한 연대 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당시까지는 편년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사회적 성격을 규정짓는 시도는 없었다.

중요한 것은 당시 단순 청동기시대는 북한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김원룡은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 청동기시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남한 지역에도 존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북한 지역에서만 철기 성기(盛期)에 앞서 일시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며 ‘시대’가 아닌 ‘문화’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김원룡 1964: 255).

당시 남한은 시대 구분 등에 있어 북한의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남한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자료는 무문토기와 관련된 자료였으며, 일본을 거쳐서 알려진 북한의 새로운 연구 자료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또는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남한 선사시대 문화의 기원지로 지목되는 북방 지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북한의 고고학적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아마도 이 시기까지가 남한과 북한의 고고학이 유사한 궤적을 걸어오는 마지막일 것이다.

3. 1970년대~1980년대

1970년대 북한의 고고학은 그 이전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다. 1960년대 후반까지 중심이었던 ‘문화이동론’을 비판하는 『조선원시고고학개요(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1)』가 발간되고, 이 시기부터 김일성 어록이 고고학 논문에 인용되기 시작한다.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의 3장으로 구성된 『조선원시고고학개요(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1)』에서는 청동기시대를 기원전 2천년기의 전기 문화와 기원전 1천년기의 후기 문화로 구분하고 있다. 기원전 8~7세기 경의 청동기시대 후기 문화 단계에 노예 소유자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하고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에 이미 철기의 사용이 시작되었다고 말하지만 철기시대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고조선이 청동기시대 후기 문화에 포함되어 서술되기 시작하며, 철기시대라는 고고학적 시대 구분은 희박해진다.

이렇듯 고조선이 청동기시대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까지 고조선의 중심지로 여겨졌던 서북한 및 요동 지역과 그 외 지역들 간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었다.

기원전 2000년기 전반기에 청동기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당연히 북한·의 전 지역에서 동시에 청동기시대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기원전 2000년기 전반기의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들고 있는 것은 평안북도 정주군 당산유적, 용천군 쌍학리유적, 요동반도의 쌍타자유적 제2기층, 벽류하 유역의 단타자유적의 무덤, 요동반도 남단의 장군산무덤류형, 심양시 조공가유적 아래문화층, 서강자유적을 비롯한 송화강 유역의 유적들로 모두 서북한 지역과 요동반도 지역의 것들뿐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청동기시대 유적이 등장하는 때는, 청동기시대 전기 문화로 구분하는 기원전 2000년기 후반기로, '서북조선 및 료하유역', '대동강 및 채령강유역', '압록강 중상류 및 송화강유역', '동해안 일대 및 두만강유역'의 4지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각 지역의 연대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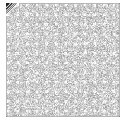
청동기시대 후기 문화에서는 고조선을 '고대고고학에서 논하여야 할 것(김일성종합대학교출판사 1971: 145)'이기에 서북 조선 및 료하유역이 제외되고 '대동강 및 채령강유역', '압록강중상류 및 송화강유역', '동해안 일대 및 두만강유역', '룡흥강 및 남대천유역', '남조선 일대'의 5지역으로 구분하여 유적 등을 설명하고 있다. 주로 고인돌의 부장품인 마제석검과 흉도만을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한의 청동기시대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사회 성격에 관한 주장도 제기된다. 청동기시대는 농업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적 생산이 늘어나고 생산에서 남성의 역할이 급속히 커지고 수공업 생산 등의 사회적 분업이 확대, 결과적으로 교역이 발전, 잉여 생산물의 축적 등으로 '재산' 및 '상속'이 등장, 일부 일체제, 부계 씨족제도가 확립된다고 보았다(김일성종합대학교출판사 1971).

이러한 인식은 『조선고고학개요(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로 이어지는데, 그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다. 우선 목차를 고고학적 시대 구분이 아니라 원시사회, 노예사회로 대분류하고, 원시사회 아래에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노예사회 아래에 고조선을 배치하고 있다. 북한의 '청동기시대는 기원전 2000년기와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를 포함하며, 청동기문화가 높이 발전한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에 서북조선과 료동지방에서는 우리나라의 첫 노예소유자 국가인 고조선 국가가 나타났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63)'고 하는 편년은 그 이전과 다르지 않으나, 청동기시대 장에서는 기원전 2000년기의 유적만을 다루고 있으며, '평양지방', '서북조선과 료동지방', '압록강 및 송화강 중상류', '두만강유역'의 4지역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조선원시고고학개요』와 유사하다. 그러나 '기원전 2000년기 전반기에 전반적인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청동기시대에 넘어섰다(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65)'라고 하지만, 평양 지방의 가장 이른 금단리유적 제3문화층을 기원전 2000년기 후반기, 압록강 및 송화강 중상류의 공귀리유적 아래 문화층을 기원전 2000년기 후반기, 두만강 유역의 서포항유적 제1기층, 오동유적 제1기층을 기원전 2000년기 전반기로 편년하는 등 각 지역별로 청동기시대 시작의 시점을 조금씩 다르게 보며 연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편년을 제시하고, 청동기시대의 일부로 다루어졌던 고조선이 별개의 장으로 분리되면서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의 다른 지역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이 『조선원시고고학개요』와 다른 부분이다. 이전에 비해 점차 청동기시대의 설명에 고조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에서 편찬된 『조선전사(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79)』는 내용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원시무리시기, 초기 모계 씨족사회, 부계 씨족사회, 고조선 등으로 시대를 구분하였으며, 이 중 부계 씨족사회 항목에서 청동기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기원전 2000년기



에서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고조선 영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눈에 띈다. 특이한 것은 고조선의 영역이 아닌 두만강 유역과 송화강 유역은 기원전 7세기부터 철기시대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과 남한의 삼거리유적, 역삼동유적, 가락동유적 등의 주거 유적을 설명하면서 기원전 2000년기 말부터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로 편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청동기시대에 대한 인식은 이후 『조선의 청동기시대(사회과학출판사 1984)』에 집성된다. 여기에서도 연대란 자체는 유사하다. ‘기원전 2000년기에 이르러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한 송화강 이남의 넓은 지역에는 서부 벌방지대를 비롯하여 압록강 하류 및 룡동지방과 압록강 중상류 및 송화강유역, 두만강유역과 동해 연안 지방, 남부 조선 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문화유형들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기원전 2000년기 전반기에 전반적으로 거의 동시에 청동기시대에 들어섰던 것이다(사회과학출판사 1984: 7)’고 하며 ‘기원전 2000년기 후반기에 들어 각 지역별 문화 유형들 사이의 발전 속도에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 지역들 중에서 농업이 일찍부터 발전한 서북조선과 요동 지방은 다른 지역들보다 빨리 발전하였으며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에 이르러 이 지역에서 개화한 고조선의 청동기문화가 다른 지역들의 청동기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사회과학출판사 1984: 7)’고 말하고 있다. 역시 각 지역별로 나누어 청동기시대의 시작 연대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동강 유역의 금탄리유적 제3문화층을 기원전 2000년기 후반기, 압록강 하류 및 요동반도 남단의 쌍타자유적 제2문화층은 기원전 2000년기 전반기, 압록강 중상류의 공귀리유적 아랫문화층은 기원전 2000년기 후반기, 두만강 유역의 서포항 청동기시대 제1기층을 기원전 2000년기 전반기, 동해안 지역 강상 유형의 유적들을 기원전 2000년기 후반기, 남한은 강화군 시도유적, 수석리, 옥석리, 가락동 등을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로 편년하고 있다. 이전에 비해 보다 더 넓은 지역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조선의 청동기시대를 취급하는 이 글에서

는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에 고대 사회가 전개되는 고조선영역과 대략 같은 시기에 철기 생산이 시작되는 일부 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의 서술은 기원전 2000년기 말에서 1000년기 초까지로 한정하고, 그 외 지역의 것은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까지 취급한다(사회과학출판사 1984: 3)’고 하여, 결국 청동기시대에서 고조선은 완전히 제외된다.

1970~80년대를 거치며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연구는 조금씩의 변화를 거치게 된다. 고조선이 본격적으로 고고학의 연구 대상이 되면서 당초 청동기시대에 포함되어 서술되던 고조선은 점차 ‘고대’의 영역이 되어 청동기시대와 분리되어 설명하게 되며, 당연히 고고학에서 철기시대를 단독으로 파악하는 사례도 없어진다. 그리고 청동기시대는 고조선이 등장하기 이전의 기원전 2000년기와 고조선 영역이 아닌 지역의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에만 해당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원시 사회에 대한 큰 틀과 편년, 사회 성격이 규정된 이후 고조선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청동기시대의 연구 영역 자체는 축소되는 것이 이 시기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부터 남한의 고고학과 북한의 고고학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북한에 비해 한참 늦게 다양한 종류의 고고학 개설서가 발간되면서, 북한과는 또 다른 의미로 지금의 청동기시대 편년 체계의 바탕이 만들어지게 된다.

1973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된 『한국사 1 고대 한국의 선사문화(국사편찬위원회 1973)』, 한국 고고학 최초의 개설서인 『한국고고학개설(김원룡 1973)』, 『한국고고학개설 개정신판(1977)』, 『한국고고학개설 3판(1986)』 등이 이 시기에 발간되는데, 각각 시대 명칭이나 편년에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한국고고학개설(김원룡 1973)』에서는 청동기문화의 연대에 대해 기원전 700~600년경부터 한국식동검이 출현하는 기원전 300년경까지를 청동기시대 1기, 기원전 300년경에서 서력 기원전후까지를 청동기시대 2기, 초기 철기문화로 파악하고 있어 1964년의 「한국 문화의 고고학적 연구」보다 청동기문화 상한을 조금 올려보고 있다.

같은 해에 발간된 『한국사 1 고대 한국의 선사문화』에서는 「청동기문화」에서 청동기시대와 초기 철기시대 모두를 다루고 있다. ‘편년’ 부분에서는 ‘무문토기 시대’를 청동기 I기(B.C. 600~300)와 청동기 II기(B.C. 300~0)로 구분하였으며, 다시 청동기 I기를 전기(B.C. 7, 6세기), 후기(B.C. 5, 4세기)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기준으로 청동기시대인 청동기 1기를 두 단계로 나누는 시기 구분의 내용은 지금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1기의 전기는 압록강 유역과 함경북도의 유적들로 북방계 청동기가 한반도에 유입되는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 시기의 남한은 신석기 단계에 있었으며, 유적이 점차 남쪽으로 확산되면서 1기의 후기로 넘어간다고 이해하고 있다. 당시까지 청동기와 무문토기가 특정한 하나의 시대적 문화요소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들어와 청동기시대 편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청동기시대를 전, 중, 후기로 구분하는 3시기 구분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고고학개설 3판』은 『고고학개설 개정신판』과는 달리 청동기문화와 초기 철기문화를 각각 별도의 시대로 구분하고 있어 아직까지 시대 구분이 명확하게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개시기 연대를 기원전 1000년경까지 올려보지만, 하한은 기원전 300년경, 초기 철기시대를 기원전 300년경에서 기원 전후까지 보는 견해는 동일하다.

1970~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북한과 남한의 청동기시대에 대한 편년관 등에 큰 격차를 보이게 된다. 북한의 경우 청동기시대의 늦은 시기에 고조선이 들어오게 되면서, ‘고고학적 시대 구분으로서의 청동기시대’와 ‘고대로서의 고조선을 제외한 청동기시대’,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연대 역시 기원전 2000년기부터 기원전 1000년기 전반기까지가 청동기시대로 이해된다. 또한 철기시대라는 고고학적 시대 명칭은 사라진다.

남한의 경우 1980년대 들어와 청동기시대, 초기 철기시대란 명칭이 자리를 잡게 되며 청동기시대의 상한을 기원전 1000년경, 하한은 기원전 300년경, 초기 철기시대를 기원전 300년경에서 기원 전후까지로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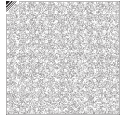
이 시기까지 북한의 청동기시대 늦은 단계와 철기시대가 고조선으로 인식되면서, 청동기시대와 초기 철기시대로 구분하는 남한 고고학의 시대 구분과는 차이를 보이게 된다. 하지만 편년관에 있어서는 북한 또는 남한이라는 연구 대상 지역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1990년대 북한 고고학에서 대동강문화가 주창되면서 남한과 북한의 고고학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4. 1990년대에서 현재까지

단군릉의 발굴(1993년), 단군릉의 개건(1994년), 대동강문화의 주장(1998년)으로 이어지는, 1990년대 북한의 고고학은 그 이전과는 모든 면에서 달라진다. 특히 단군릉의 발굴로 인해 기존의 선사 고고학 편년 체계는 모두 조정된다. 1980년대까지 요동 지방에서 고조선의 중심지를 찾고 기원전 10세기경까지 연대를 올려보았던 것과는 달리, 단군릉의 발굴 이후 고조선의 중심지는 평양, 연대는 기원전 3천년기 초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에 따라 고조선 이전 시대의 모든 연대가 수정되고, 이때부터 청동기시대의 명칭은 사라지며 ‘신석기시대’ → ‘고대’의 시대 구분이 정착된다. 단군릉의 발굴 이후 『조선고고연구』의 선사시대 논문은 대부분 고조선 또는 평양 지역의 유적 유물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대동강문화의 천명 이후 극심해진다. 고조선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역사 흐름을 새롭게 구축하는 논의가 시작된다. ‘대동강문화’의 천명 이후 북한 고고학의 가장 큰 문제는, 당시까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단군 및 고조선 연구의 이전과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였다. 즉 당시 발견된 많은 유적, 유물들을 하나의 편년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선후 관계와 병존 관계를 밝히는 작업이었다. 결과적으로 ‘우리 강토에서 인류는 100만 년 전 이전에 출현하여 구석기시대를 거쳐 B.C. 9000년기에 벌써 신석기시대에 들어섰으며, B.C. 4000년기 후반기에는 평양 부근에서 청동기시대 문화를 창조하였고, B.C. 3000년기 초에는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고조선 국가를 먼저 평양 일대에 세웠다는 것이 확증되었다고 하며, '고조선 문화는 좁은 낫단검이 출현하고 철기가 쓰이기 시작한 기원전 2000년기 말을 계선으로 하여 전지는 고조선 전기 문화, 후지는 고조선 후기 문화'로 구분하였다(리주현·한은숙 2009: 149).

이러한 흐름 속에서 평양 주변 지역이 본격적으로 발굴되고, 이 시기에 조사된 표대유적(1994년), 남양유적(1994년), 대동강 유역의 고인돌 등이 대동강문화의 고고학적 증거로 인용된다.

북한 고고학에서 '청동기시대'와 '고대'의 구분은 매우 애매하다. 물론 기본적인 인식은, '청동기시대'가 시작되고 사회가 발전하여 최초의 고대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한 이후를 '고대'로 파악하기 때문에 '고대'의 개념에는 청동기시대 일부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남한 고고학에서 보는 청동기시대를 북한은(대동강 유역 중심의 경우) 팽이그릇시기로 칭하고, 이를 1기에서 4기까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 중 팽이그릇 1기는 청동기시대, 팽이그릇 2~4기는 고조선 전기로 보고 있다. 그렇기에 청동기시대에 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팽이그릇 집자리 중 어느 것이 청동기시대에 속하고, 어느 것이 고대 시기에 속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다(김길룡 2010: 5).

이렇게 팽이그릇시기의 집자리는 주로 주거지의 중복 관계와 집자리의 구조 등을 기준으로 하여 4시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 역시 모두 이 시기 구분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아래는 평안북도 지역의 팽이그릇시기 집자리를 4시기로 구분한 최근의 연구이다(표 1, 2).

두 연구 모두 시기 구분 및 편년은 동일한데, 1기는 B.C. 4000년기 후반기, 2기는 B.C. 3000년기 전반기, 3기는 B.C. 3000년기 후반기, 4기는 B.C. 2000년기 전반기로 편년하고 있다. 이러한 청동기시대의 편년은 이미 '대동강문화'에서 이야기된 것이다.

그런데 팽이그릇시기 1기의 집자리들은 고조선 전기의 특징적인 유물로 널리 알려져 있는 1류형 조롱박형단지(미송

표 1 송림, 황주 일대 팽이그릇 시기 집자리

팽이 그릇시기 1문화기		팽이 그릇시기 2문화기		팽이 그릇시기 3문화기	팽이 그릇시기 4문화기
B. C. 4000년기 후반기		B. C. 3000년기 전반기		B. C. 3000년기 후반기	B. C. 2000년기 전반기
1부류	2부류	1부류	2부류		
기둥그루, 기둥구멍의 흔적없음	벽가장 자리에 기둥그루 흔적	벽가와 복관에 기둥그루 흔적	3줄의 기둥 흔적	회독자리가 2개인 집자리	주춧돌이 있는 집자리
석정리유적 (1호, 2호)	석탄리유적 (3호, 4호, 9호, 14호, 30호, 33호, 36호)	고연리유적 (3호, 9호)	석정리유적 (3호)	당산리유적 (1호)	고연리유적 (10호)
침춘유적 (1호, 2호, 3호, 4호)		석탄리유적 (38호)	고연리유적 (1호, 4호, 5호, 7호, 9호, 11호, 12호, 14호)	석탄리유적 (23호, 26호, 27호, 31호, 32호)	석탄리유적 (25호, 41호)
석탄리유적 (7호, 13호, 15호, 17호, 20호)			석탄리유적 (2호, 8호, 35호, 39호, 40호)	고연리유적 (6호)	
			마산리유적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6호, 17호)	마산리유적 (4호)	

(리경철 2010:146, 필자 편집)

표 2 팽이그릇 시기 집자리

1기 (B. C. 4000년기 후반기)	2기 (B. C. 3000년기 전반기)	3기 (B. C. 3000년기 후반기)	4기 (B. C. 2000년기 전반기)
남양리유적 2, 6, 10, 15, 19호 대평리유적 102호 표대유적 8, 12, 18, 22, 32, 47호 석탄리유적 3, 13, 5, 6, 7, 9, 13, 14, 15, 17, 18, 19, 20, 30, 33, 36, 42호 남경유적 6, 7, 9, 30, 33, 34, 36호 신흥동유적 1, 2, 4~7호 침춘유적 1~4호 석교리유적 1~4호 금탄리유적 1, 2호 림석리유적 1호 석정리유적 1, 2호 와산동유적 원암동유적 강로리유적	남양리유적 1, 5, 14, 23호 대평리유적 101호 표대유적 3, 5, 7, 17, 20, 21, 23, 25, 27, 29, 40, 48호 석탄리유적 2, 8, 35, 38, 39, 40호 남경유적 1, 2, 3, 4, 5, 10, 11, 13, 16, 18, 19, 35호 고연리유적 1, 3, 4, 5, 7, 8, 9, 11, 12, 14호 마산리유적 10, 11, 12, 13, 14, 16, 17호 금탄리유적 3, 8호 소정리유적 5, 12, 14호 통천리유적 룡산리유적 주암리유적	남양리 유적 8, 13, 16, 18, 20, 21호 대평리유적 3, 5, 103호 표대유적 4, 10, 24, 20, 41, 45, 46, 53호 석탄리유적 23, 26, 27, 31, 32, 37호 남경유적 14, 15호 신흥동유적 3호 고연리유적 6호 마산리유적 4호 림석리유적 2호 당산리유적 2호 미림섬비위유적 소정리유적 13호	남양리 유적 3, 4, 9, 11, 22, 25호 대평리유적 2, 7, 8, 105호 표대유적 6, 9, 13, 16, 19, 26, 37, 49, 54호 석탄리유적 25, 41호 남경유적 8호 고연리유적 10호

(림통국 2010:214, 필자 편집)

리형단지가 나온 팽이그릇시기 2기의 집자리밑에 놓여있었다. 이것은 대동강유역의 청동기시대문화가 단군조선국가 성립 이전 시기에 존재하였던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대유역에서 발굴된 팽이그릇시기 1기의 집자리인 8호 집자리의 측정년대는 지금으로부터 5283±777년전이고 12호 집자리의 측정년대는 지금으로부터 5206±696년전(핵분열흔적법)이다. 따라서 대동강유역의 청동기시대문화는 기원전 4000년기 후반기에 해당되는 문화라고 말할 수 있다(서국태·지화산 2009: 56).'

기본적으로 북한의 청동기시대에 대한 인식은 '평양일대에서 B.C. 4000년기 후반기에 신석기시대문화를 계승발전시킨 팽이그릇문화 즉 청동기시대문화가 창조되고 B.C. 3000년기초에 이르러서는 단군조선문화가 창조되어 그 후 오랜 기간에 걸쳐 그것이 높이 개화발전하면서 단군조선시기의 특징적인 유물들인 비파형단검이나 비파형창끝, 미송리형단지와 같은 것들이 생겨나 널리 쓰인 사실이 뚜렷이 입증된다(리정철 2010: 181).'는 것이다.

즉 신석기시대문화를 계승하여 청동기시대가 시작되고 청동기문화가 발전하면서 고조선이 건국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에 북한의 청동기시대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팽이그릇 2기~4기의 유적, 유물 등에 대해서는 '고대' 또는 '고조선'으로 파악해 이야기하고 있어, 실제 '청동기시대'로 말해지는 유적, 유물의 수는 매우 적을 뿐이다.

이렇게 대동강문화가 강조되면서 대동강 유역 이외 지역의 유적 조사 사례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대동강 유역에서 표대유적(강영철 2012; 김종혁 2003; 김종혁·전일권 2010; 김종혁·전영수 2003; 박철 2010a, b, 2012, 2015; 서국태 외 2003), 리천리유적(고적발굴대 2015;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12; 지화산·차달만 2009, 2010, 2011, 2012, 2015a, b; 차달만 2009, 2010, 2014) 등 대규모의 취락 유적이 조사되어 청동기시대에서 고조선까지의 물질적 증거로 반복되어 이야기되는 반면, 그 이외 지역

의 조사 사례는 함경북도의 하삼봉리유적(김동일·김광철 2010), 함경남도 요덕읍유적(김성국 2010), 량강도의 신명리유적(김동일·로철수 2013), 라선시 선봉지구 우암동 집자리(장철만·리명철 2018) 등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 내용 역시 단순 자료 소개로 연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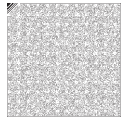
북한에서 대동강 문명이 천명된 후 청동기시대 고고학에 큰 변화가 없는 것에 비해 남한에서는 1990년대 이후 청동기시대 고고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특히 시기 구분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난다. 돌대문토기를 표지로 하는 조기가 설정되면서(안재호 2000) 4분기설이 등장하고, 점토대토기를 청동기시대에서 제외한 조기-전기-후기의 3분기 구분안도 등장한다(안재호 2006). 이러한 여러 시기 구분의 논의에서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발간되는 청동기시대 총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조기-전기-중기-후기의 4분기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연대는 기원전 1500~1300, 1200년까지를 조기, 기원전 900년까지를 전기, 기원전 500년까지를 중기, 기원전 300년까지를 후기로 보고 있다(안재호·이형원 편 2016).

1990년대 이후 북한 고고학과 남한 고고학은 공유되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그 차이가 심해진다. 대동강문화의 천명 이후 북한의 청동기시대 개시 연대와 남한의 청동기시대 개시연대는 거의 1500년 이상의 차이가 난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청동기시대와 초기 철기시대의 고고학적 시대 구분으로 선사문화를 설명하고 있는 남한과 달리 북한의 청동기시대는 매우 짧은 기간만 해당되고 그 이후는 고대, 즉 고조선에 포함되면서 당연히 철기시대에 관한 논의도 없게 된다.

IV. 북한과 남한 청동기시대 고고학의 인식 차이

해방 이후 북한과 남한의 청동기시대 고고학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 1960년대 초반까지 도유호에 의해



주도된 북한의 청동기시대 고고학은 일제강점기의 금석 병용기설을 강력히 비판하며, 지탑리 유적의 발굴 조사로 청동기시대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금속문화의 기원과 계통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며(정백운 1957 등), 청동기시대의 상한을 기원전 1천년기 초엽, 하한은 기원전 4세기 초로 추정하였다. 1960년대 들어와 중국 동북 지방의 유적들의 발굴을 계기로 비파형동검문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고조선이 고고학의 연구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결과로 청동기시대의 개시를 서기전 2000년기 말까지 올려보고(김용간 1964), 고조선을 요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노예제 국가로 보는 주장이 정착된다. 이후 1960년대 후반에는 북한의 사상 체계에 대한 정비가 강화되며, 197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고조선이 청동기시대 연구에 포함되고 청동기시대-고대라는 시대 구분을 바탕으로 철기시대 자체는 거의 논의되지 않게 된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의 선사 고고학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단군릉의 발굴과 개진, 대동강문화의 주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고조선의 중심지는 평양, 연대는 기원전 3천년기 초까지 올려보게 된다. 당연히 고조선 이전의 연대도 조정된다. 청동기시대는 기원전 4000년기 후반기에 시작되고 고조선의 연대가 기원전 3000년기 초가 되며, 실제 청동기시대는 매우 짧은 기간에 불과하게 되어 청동기시대 대부분과 철기시대는 모두 '고대'로 통일된다.

이러한 북한 선사고고학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 고고학의 정치성을 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 현재 청동기시대를 바라보는 인식과 남한의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후 북한의 자료를 포함하여 '한반도의 선사문화',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선사 문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청동기시대 고고학은 시대 관과 편년에 있어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연구 결과의 지속적인 누적에 의한 패

러다임의 변화가 아니라는 점이다(이기성 2015). 1970년대 주체사관이 고고학의 배경이 된 후에는 '당성, 로동계 급성의 원칙, 력사주의 원칙' 등 '교시'에 따른 발굴과 연구가 이루어질 뿐이며, 대동강문화의 천명 이후 시대관과 편년은 모두 수천 년씩 상향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모두 '교시'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기에 대동강문화 천명 이전의 편년관과 지금의 북한 고고학의 편년관을 비교해 어떠한 고고학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남한의 편년관과 어떠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무의미하다.

우선은 지금 현 상황에서 북한과 남한의 청동기시대 고고학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논점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시대 구분과 편년의 문제일 것이다.

남한의 편년과 수천 년간의 격차를 보이는 청동기시대 상한 연대의 경우, 북한은 나름의 과학성을 담보하고자 한다. 연대의 극단적인 상향으로 주변 지역과의 교차 편년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북한의 고고학계는 절대 연대 측정치를 연대 결정의 근거로 들고 있다. 대동강 유역의 대표적인 대규모 취락 유적인 표대유적의 '핵분열흔적법'과 '열형광법'에 의한 절대 연대를 북한 청동기시대의 절대 연대의 기준으로 삼고(김종혁·전일권 2010), 그 이외의 유적들은 표대유적과의 상대 편년으로 그 연대가 결정되는 방식이다(표 3). 예를 들어 표대유적과 더불어 대동강 유역의 주요한 유적인 리천리유적의 경우, 주거지의 중복 관계, 주거지의 기둥 및 주춧돌의 배치 상태, 노지 수 등에 따라 4기층으로 나눈 후, 절대 연대 측정치가 있는 표대유적의 주거지와 유사한 주거지를 찾아 절대 연대를 부여하는 것이다.

물론 이 연대치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지금 이러한 연대치를 부정하고 새로운 편년 체계를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표대유적을 제외하면 절대 연대 측정치를 찾기 어려우며, 각 시기를 500년 단위로 구분하는 북한의 편년 체계는 그리 정교

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유물 실견 또는 분석이 가능한 시점이 오면 연대 문제는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3 표대유적 절대 연대 측정치

집자리번호	연대측정값	측정방법
8호	5283±777년	핵분열
12호	5206±696년	핵분열
3호	4668±649년	핵분열
11호	4415±718년	핵분열
4호	4140±390년	열형광
59호	3774±592년	핵분열
50호	3150±240년	열형광

(김종혁·전일권 2010: 228, 표 59, 필자 편집)

더 중요한 문제는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이다. 청동기시대와 초기 철기시대로 구분하는 남한의 시대 구분과 달리 북한 고고학에서는 짧은 기간의 청동기시대와 ‘고대’로 시대가 구분된다. 남한 고고학의 청동기시대에 해당되는 문화 단계를 북한은 팽이그릇시기로 칭하고 이를 1기에서 4기까지로 나누는데, 이중 팽이그릇 1기만이 청동기시대, 그 이후는 고조선에 해당된다. 즉 문화적 연속성은 존재하지만 고고학적 시대 구분으로써의 청동기시대는 약 500여 년 정도의 기간뿐이며, 이후는 고조선, 시대 구분으로는 고대에 해당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고조선의 중심지로 지목되는 평양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이다. 1980년대 고조선의 위치를 서북조선과 요녕 지역으로 볼 때까지는 하더라도 그 이외의 지역 역시 연구의 대상이었다. 『조선원시고고학개요』, 『조선고고학 개요』, 『조선의 청동기시대』등에서도 고조선을 고대로 분류하였지만, 고조선 영역 이외의 지역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보았다. 한반도 내에서도 지역적 문화 발전의 속도 차이를 인정하며 각 지역에 따른 문화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그러나 대동강문화론 이후, 고조선의 위치로 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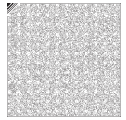
된 대동강 유역의 유적만이 소개될 뿐, 그 이전까지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압록강 중상류, 두만강 유역, 동해안 지역의 유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는다. 간혹 단발적으로 조사된 새로운 유적도 단순 자료의 소개에 불과하며 시대 구분, 연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그 이전까지 청동기시대의 대표 유적으로 이야기되었던 공귀리유적, 범의구석유적, 오동유적, 서포항유적 등 역시 모두 ‘고대’로 분류되고 있다(사회과학원 2009). 그렇기에 점차 대동강 유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더 고고학 양상을 알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연구의 지역적 편중은 남한 청동기시대 연구에도 영향을 미친다. 2000년대 이후 남한의 무문토기 문화 성립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북한의 고고학 자료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배진성 2003; 천선행 2018 등), 남한 무문토기 문화에 크게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대동강 유역을 제외한 그 이외의 지역이 중요시되지만, 새로운 자료가 없기에 대부분 1980년대 이전의 자료가 인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북한의 고고학을 청동기시대, 초기 철기시대라는 남한 고고학의 틀 속에 넣기는 불가능하다. 이전까지 암묵적으로 남한 고고학에서 도외시되었던 고조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지금(한국고고학회 2007), 고고학적 시대 구분을 우선시할 것인지 또는 고조선을 따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남한에 서만 사용되는 초기 철기시대의 시대 구분을 어떻게 북한 고고학에 적용시킬지의 문제도 남아 있다.

그러나 청동기시대와 고대, 청동기시대와 초기 철기시대라는 시대 명칭과 고조선의 성격, 어느 시대로 포함시킬 것인지는 학술적 논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특히 상당 부분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 근거한 것이라면(그것이 연구자 개인의 생각이든 이미 학문적 전제로 설정되어 있든) 그것을 ‘토론’으로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과 남한의 청동기시대 고고학의 괴리는 조사 사례의 증가, 학술적 논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



렇지 않은 것도 있다. 수십 년간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북한과 남한의 고고학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쟁점인 고조선이 포함된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의 여러 논쟁점들이 자료의 정리만으로 간단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 청동기시대의 시대 구분이나 절대 연대와는 별개로 남한 선사 고고학의 여러 쟁점들 중에서는 북한 고고학의 연구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다수 있다.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전환 과정, 도작 농경의 확산, 돌대문토기의 기원지와 확산 과정, 점토대토기의 기원지와 확산 과정 등, 북에서 남으로의 문화 확산 과정이 빈번했던 한반도의 선사시대를 해석하는데 있어 여러 중요 쟁점 중 대다수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기성 2016).

북한에서의 발굴이나 자료의 실견이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 자료와 관련된 쟁점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쟁점들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유적의 조사가 필요한지 등, 언젠가 맞닥뜨리게 될 북한의 지역의 유적 조사에 대한 인식과 계획,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V. 맺음말

북한 선사 고고학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 고고학의 정치성을 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 현재 청동기시대를 바라보는 인식과 남한의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후 북한의 자료를 포함하여 '한반도의 선사문화',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선사 문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북한과 남한의 청동기시대 고고학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들은 학술적 토론 또는 조사 사례

의 증가 등 이후 유적·유물의 실견 및 분석이 가능해지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물론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 의해 학술적 '토론'으로 합의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쟁점인 고조선이 포함된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의 편년, 지역성 등의 여러 논쟁점들은 자료의 정리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장애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한반도 전체의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를 구명하는데 있어 어떠한 쟁점들이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명확히 하는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언젠가 남한 고고학이 당면하게 될, 통일 이후 고고학 조사의 기초를 위한 것이다.*

* 본 논문은 2019년 9월 19일 한국고고학회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개최한 『분단 70년 북한 고고학계의 현주소』 학술 대회에서 발표한 「북한 청동기시대 고고학 연구 경향의 변화와 쟁점」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참고문헌

남한

- 강인옥, 2009, 「동북아시아 청동기시대 속의 북한 -연구사와 무문토기문화권의 설정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관점에서 본 북한의 청동기시대』 제2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사분과 발표회
- 강인옥, 2011, 「동북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북한 청동기시대의 형성과 전개」 『동북아역사논총』 32
- 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고고학회, 2019, 『분단 70년 북한고고학의 현주소』
- 국사편찬위원회, 1973, 『한국사 1 고대 한국의 선사문화』
- 김원룡, 1952, 「경주 구정리 출토 금석병용기 유물에 대하여」 『역사학보』 Vol.1
- 김원룡, 1961, 「십이대영자의 청동단검묘-한국 청동기문화의 기원 문제」 『역사학보』 16
- 김원룡, 1964, 「한국문화의 고고학적 연구」 『한국문화사대계 1』
- 김원룡, 1973, 『한국고고학개설』
- 김원룡, 1977, 『한국고고학개설 개정신판』
- 김원룡, 1986, 『한국고고학개설 3판』
- 김재원, 1959, 「第一編 史前時代」 『韓國史』
- 김정학, 1950, 「선사유적 탐사의 의의 - 옹천패총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신춘호』
- 박양진, 1998, 「북한고고학의 몇 가지 특징」 『인문학연구』 25-2,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배진성, 2003, 「무문토기의 성립과 계통」 『영남고고학』 32
- 백종오, 2008, 「북한의 고구려 유적 연구 현황 및 성과」 『정신문화연구』 31-1, 한국학중앙연구원
- 신숙정, 1990, 「북한 고고학계의 신석기문화 연구동향」 『博物館紀要』 6,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 신숙정, 1994, 「북한의 신석기문화 연구 40년」 『북한의 고대사 연구와 성과』
- 안재호, 2000, 「한국농경사회의 성립」 『한국고고학보』 43
- 안재호, 2006,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재호·이형원 편, 2016,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편년』
- 이광린, 1990, 「北韓의 考古學」 『東亞研究』 20,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이기성, 2011, 「초기 북한 고고학의 신석기, 청동기시대 구분」 『호서고고학』 25
- 이기성, 2015, 「북한선사고고학의 패러다임」 『고고학』 14-3
- 이기성, 2016, 「북한학계 선사고고학의 최근 연구 동향」 『통일고고학을 위한 연구현황과 과제 진단』
- 이기성, 2018, 「한국 청동기·초기철기시대 고고학사 시론」 『한국상고사학보』 99
- 이선복, 1988, 『고고학개론』 이론과 실천
- 이선복, 1992, 「북한 고고학사 시론」 『동방학지』 7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이희준, 2004, 「초기철기시대 원삼국시대 재론」 『한국고고학보』 52
- 임세권, 1994, 「북한의 청동기시대 연구」 『북한의 고대사 연구와 성과』
- 장호수, 1992a, 「북한고고학의 시기 구분론」 『백산학보』 40
- 장호수, 1992b, 「북한 청동기시대 이해를 위한 길잡이」 『북한의 선사고고학 3. 청동기시대와 문화』
- 장호수, 1995, 「북한고고학이 걸어온 길 : 1945-1991년 주요사건 해적이」 『북한선사문화연구』
- 중부고고학회, 2015, 『북한고고학의 패러다임과 논리: 서북한 선사시대 연구』 중부고고학회 2015년 정기학술대회
- 천선행, 2018, 「한국무문토기문화의 공간적 범위에 대하여」 『한국청동기학보』 22
- 최성락, 2004, 「초기철기시대 원삼국시대 재론에 대한 반론」 『한국고고학보』 54
- 하문식, 2002, 「북한의 유적답사와 고고학계 연구동향」 『白山學報』 64, 백산학회
- 한국고고학회, 2010, 『한국고고학강의 개정신판』



참고문헌

- 한국고고학회, 2016, 『통일고고학을 위한 연구현황과 과제 진단』
- 한국고고학회, 2017, 『고고학으로 본 고조선』 제4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한국고고학회, 2018, 『북한 문화유산 공동조사 방안』 한국고고학회 통일고고학특별위원회 학술회의
- 한창균, 1990a, 「북한 고고학계의 구석기시대 연구동향」 『동방학지』 6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한창균, 1990b, 「북한의 1950년대 선사유적 발굴과 그 연구동향」 『한민족』 2
- 한창균, 1990c, 『북한의 선사고고학 1. 구석기시대와 문화』
- 한창균, 1992, 「초기(1945~1950년)의 북한 고고학」 『中齋 張忠植博士 華甲記念論叢 1』 中齋 張忠植博士 華甲記念論叢刊行委員會
- 한창균, 1994, 「북한의 구석기문화 연구 30년」 『북한의 고대사 연구와 성과』
- 한창균, 1999a, 「1950년대의 북한 고고학 연구」 『白山學報』 53, 백산학회
- 한창균, 1999b, 「최근 북한의 청동기시대 연구 동향」 『한국상고사학보』 30
- 한창균, 2000, 「1960년대의 북한 고고학 연구」 『白山學報』 55, 백산학회
- 한창균, 2002, 「한국의 선사시대에 대한 북한 고고학계의 동향과 시각」 『韓國古代史研究』 25, 한국고대사학회
- 한창균, 2013a, 「도유호와 한흥수: 그들의 행적과 학술논쟁(1948~1950)」 『한국고고학보』 87, 한국고고학회
- 한창균, 2013b, 「북한고고학사의 시기 구분 체계에 대하여」 『한국상고사학보』 79
- 한창균, 2014, 「해방 이후~1950년대에 있어 한국 구석기시대의 인식」 『고고학』 13-2, 중 부고고학회

[북한]

- 강영철, 2012, 「표대유적 고대집자리에서 나온 돌손가락」 『조선고고연구』 2012년 3호
-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1957, 『유적발굴보고 제2집 공산 원시유적 발굴 보고』
-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1955, 『유적발굴보고 제1집 라진 초도 원시유적 발굴보고서』
-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1960a, 「해방 후 조선고고학이 걸어 온 길」 『문화유산』 1960-4
-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1960b, 「〈고고학상으로 본 고조선〉에 대한 과학토론회」 『문화유산』 1960-3
-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1961a, 「학술토론회 〈고조선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문화유산』 1961-4
-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1961b, 「학계소식 고조선에 관한 과학토론회」 『문화유산』 1961-5
- 고적발굴대, 2015, 「리천리유적 50호, 51호 집자리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15년 4 호
- 김길룡, 2010, 「대동강유역 청동기시대 집자리와 유물에 관한 연구」 『조선사회과학학술집 275 고고학편 고고학연구논문집 15』 사회과학출판사
- 김동일·김광철, 2010, 「하삼봉리유적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10년 2호
- 김동일·로철수, 2013, 「신명리 고대집자리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13년 4호
- 김성국, 2010, 「요덕읍유적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10년 2호
- 김종혁, 2003, 「표대유적 제1지점 팽이그릇 집자리 발굴보고」 『마산리, 반궁리, 표대유적 발굴보고』 사회과학출판사, 백산자료원.
- 김종혁·전영수, 2003, 「표대유적 팽이그릇 집자리들의 편년」 『조선고고연구』 2003년 2호
- 김종혁·전일권, 2010, 「표대유적에 대한 연구」 『조선사회과학학술집 290 고고학편 고고학 연구논문집 22』 사회과학출판사
- 김용간, 1958, 「금석병용기와 관련하여」 『문화유산』 58-2
- 김용간, 1964,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년대론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고고민속』 1964-2
- 김용간·석광준, 1984,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용간·황기덕·김재호, 1958, 「조선에서의 금속문화기원에 대한 토론」 『문화유산』 58-2
- 김용남·김용간·황기덕, 1975, 『우리나라 원시집자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김유방, 1963, 「도유호 저 〈조선원시고고학〉에 대한 몇가지 의견」 『역사과학』 1963-2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1, 『조선원시고고학개요』

참고문헌

- 도유호, 1956, 「조선력사상에는 과연 노예제 사회가 없었는가」 『역사과학』 1956-3
- 김재효, 1958, 「우리나라 초기금속문화의 원류에 대한 몇가지 문제」 『문화유산』 58-2
- 도유호, 1960a, 『조선원시고고학』
- 도유호, 1960b, 「고조선에 관한 약간의 고찰」 『문화유산』 1960-4, 19
- 도유호, 1961, 「고조선문화에 대하여」 『역사과학』 1961-1호
- 리경철, 2010, 「승림, 황주일대의 팽이그릇관계 집자리유적에 관한 연구」 『조선사회과학학술집 275 고고학편 고고학연구논문집 15』 사회과학출판사.
- 리주현·한은숙, 2009, 『조선고고학총서 1 총론』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 림용국, 2010, 「팽이그릇시기 집자리에 관한 연구」 『조선사회과학학술집 289 고고학편 고고학연구논문집 21』 사회과학출판사
- 박진욱, 1988, 『조선고고학전서 (고대 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박철, 2003, 「표대유적 제2지점에서 발굴된 집자리와 유물」 『조선고고연구』 2003년 1호
- 박철, 2010a, 「표대유적에서 발굴된 고인돌무덤」 『조선고고연구』 2010년 1호
- 박철, 2010b, 「표대유적 제8지점에서 드러난 팽이그릇시기 집자리들의 층서관계와 1기층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0년 4호
- 박철, 2011, 「표대유적 제8지점에서 발굴된 팽이그릇시기 2기층의 집자리와 유물」 『조선 고고연구』 2011년 1호
- 박철, 2012, 「표대유적 제8지점에서 드러난 팽이그릇시기 3 기층, 4기층의 집자리와 유물」 『조선고고연구』 2012년 3호
- 박철, 2015, 「표대유적에서 새로 조사된 도로시설」 『조선고고연구』 2015년 3호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조선 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동북조선 일대의 고대집자리 조선고고학 전서 14 고대 편 5』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12, 「리천리유적에서 발견된 팽이그릇기기의 대형집자리」 『조선고고연구』 2012년 4호
-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79, 『조선전서 I -V』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1984, 『조선의 청동기시대』 사회과학출판사
- 서국태·지화산, 2002, 『남양리유적 발굴 보고』 사회과학출판사 (백산자료원)
- 서국태 외, 2003, 『마산리, 반궁리, 표대유적 발굴보고』 사회과학출판사(백산자료원)
- 서국태·지화산, 2009, 『대동강문화 조선고고학 전서 23』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 장철만·리병철, 2018, 「라선시 선봉지구 우암동집자리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2018-2
- 정백운, 1957, 『조선 금속문화기원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 과학원출판사
-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 1966, 『중국동북지방의 유적 발굴보고 1963~1965』
- 지화산·차달만, 2009, 「리천리유적 팽이그릇시기 1기층에 대하여(1)」 『조선고고연구』 2009년 4호
- 지화산·차달만, 2010, 「리천리유적 팽이그릇시기 2기층에 대하여(1)」 『조선고고연구』 2010년 3호
- 지화산·차달만, 2011, 「리천리유적 팽이그릇시기 2기층에 대하여(2)」 『조선고고연구』 2011년 1호
- 지화산·차달만, 2012, 「리천리유적 팽이그릇시기 3기층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012년 2호
- 지화산·차달만, 2015a, 「리천리유적 팽이그릇 시기 4기층에 대하여(1)」 『조선고고연구』 2015년 2호
- 지화산·차달만, 2015b, 「리천리유적 팽이그릇시기 4기층에 대하여(2)」 『조선고고연구』 2015년 3호
- 차달만, 2009, 「리천리유적에서 새로 알려진 팽이그릇시기의 로동도구제작장」 『조선고고 연구』 2009년 2호
- 차달만, 2010, 「리천리유적 팽이그릇시기 1기층에 대하여(2)」 『조선고고연구』 2010년 1호
- 차달만, 2014, 「리천리유적에 대한 연구 조선사회과학학술집 478」 사회과학출판사
- 황기덕, 1964, 「철기시대」 『고고민속』 1964-4
- 황기덕, 1984, 『조선 원시 및 고대 사회의 기술발전』
- 황기덕·강인숙·박진욱, 1987, 『비파형 단검문화에 관한 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Changes in Research Trends and Issues Relating to North Korean Bronze Age Archaeology

Kisung Yi Professor, Dept. of Archaeology,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Corresponding Author : huare@nuch.ac.kr

Abstract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from Japanese colonialism, archeology in South and North Korea took different paths. In particular, archeology in South and North Korea began to show great differences from the 1970s, when the former experienced rapid academic advancement following the evacuation of large-scale relics and the latter began to demonstrate a drastically political nature. North Korea declared ‘Daedonggang Culture’ in the 1990s, and South and North Korean archeology subsequently became so divorced that the two shared almost no common ideas. This kind of discrepancy is now particularly prominent with regard to the Bronze Age and Iron Age around “Gojoseon”.

Researchers of prehistoric archeology in South Korea have no choice but to keep referring to North Korean archeology. This is because North Korean resources are the main research subjects for identifying “the origin and descent of culture”, which is still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earch topics. However, people cast doubt on their reliability. Such a “two-fold viewpoint” demonstrates how those associated with South Korean archeology perceive thei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A large part of the visible “ga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erms of Bronze Age archeology comes from “political difference” that cannot be resolved by an increase in survey cases or academic debate. However, examining the trend in prehistoric archeology in North Korea is not aimed at criticizing the political nature of North Korean archeology. The goal is to investigate how the North Korean perspective on the Bronze Age differs from that in South Korea at present and to examine the potential problems in explaining “prehistoric cultur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furthermore, prehistoric culture in Northeast Asia, by including North Korean resources.

This paper examines how Bronze Age-related research trends have evolved in North Korea to date and compares them with those seen in South Korean archeology during the same period.

Keywords North Korean archaeology, Bronze Age, Gojoseon, Daedonggang culture, History of Archaeology

Received 2020. 06. 29 • Revised 2020. 07. 22 • Accepted 2020. 08. 13